

제12편 - 소사신앙촌 시대 <제3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51회)

제12편
 소사신앙촌시대 <제3부>
 一. 밀실(密室)
 二. 밀실의 역할
 三. 밀실에서 삼신일체(三神一體) 일인출(一人出)된 조희성님
 1) 아담이긴자인 구세주 후보자
 2) 사망의 신인 나라는 주체의식과 생명을 전투쟁

三. 밀실에서 삼신일체 일인출된 조희성님

사) 승리하신 조희성님

그러한 일이 있던 후부터 조희성님은 6개월 동안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다시 목숨을 건 투쟁을 시작하셨다. 하루는 해와이긴자의 큰아들 최춘길 씨가 아무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조희성님을 갈기는 것이다. 힘으로 말하면 천연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나약한 체격의 상대다. 생각지도 않게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당한 조희성님은 당연히 화를 내거나 아니면 부지 중이라도 같이 주먹을 상대에게 날려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조희성님은 생각지도 않은 주먹세례를 받은 상태였으나 마음은 고요하였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어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웃으면서 상대를 바라보니 상대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돌아서서 막 뛰어 도망가는 것이다. 조희성님이 그 시련을 이기시니 상대방 속에 있던 ‘주먹 혈기’ 마귀가 죽어버린 것이다. 그 ‘주먹 혈기’ 마귀가 죽으니 상대방은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도망을 친 것이다.

그러한 일이 있던 후, 그 다음 날 1980년 10월 15일 조희성님에게 “네가 이겼다”로 말씀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때에는 ‘좋아하는 음란죄’에 떨어지지 않으셨다. 비참한 집 없는 잔잔한 호수 표면같이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두 번 다시 ‘좋아하는 음란죄’에 떨어지지 않으셨다.

그래서 조희성님은 조용히 흔들림이 없이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이겼는지요!”라고 마음으로 화답을 하셨다. 그랬더니 “또 네가 이겼다!”라고 하셨다. 그때 조희성님은 “또 이긴 것도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겼나이다!”라고 화답하셨다. 며칠 지난 후 “네가 완성자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이다. “내가 완성자가 되었나요 하나님이 완성자가 되셨나이다!”라고 화답했다. 또 며칠이 지난 후 “네가 뉘 죄든지 정하면 정하여지고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리라!”라고 하시면서 “네가 이제는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셨다. 그때 조희성님은 “하나님이 오셔서 죄정하시니 하나님이 되셨나이다!”라고 하셨다.

이상 기록한 내용이 목을 매어 죽으려고 하셨던 조희성님이 다시 마음을 고쳐 잡고 목숨을 내걸고 용맹정진한 끝에 성공적으로 기록하여 승리하신 구세주로 출현하시는 모습이다. 6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갈고 닦아 하나님께서 해산의 수고 끝에 완성의 승리자 구세주를 낳아 출현시키시는데 성공을 거두시는 감격스러운 장면이다.

나라고 하는 것이 마귀요 나라고 하는 의식이 죄의 근원이요 선악과요 사망의 원인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각(大覺)하신 조희



성님은 철저히 나를 멀하여 없애기 위해 피눈물나는 투쟁을 하신 끝에 승리의 개가를 올린 것이다. 이 감격스런 장면에 온 인류는 두손을 높이 들고 ‘이기신 구세주 조희성님 감사합니다.’ 라고 목청을 높여 합창을 해야 할 것이다.

조희성님의 목숨을 내건 투쟁의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영모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2년 전까지 이긴자의 정체를 숨겨왔다. 발표할 때까지는 누구도 눈치 못 채게 가리고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려운 고비를 넘겨...(1982.2월 말씀)”

이기신 후 뒷산에 나무를 하러 갔더니 나무와 풀들이 춤을 추면서 허리를 굽혀 절을 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다.

“창조함을 받은 만물이 그 바라는 것은 만물의 썩어짐의 종됨을 장차 벗어나서...(롬8:21)” 이 말씀처럼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삼라만상이 다 이기신 하나님이 구세주로 출현하시어 사망의 신 마귀에 의하여 잡혀있는 썩어짐의 종의 굴레를 벗겨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산천초목이 승리하신 구세주를 먼저 알아보고 허리를 굽혀 경배를 드리는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불경은 이러한 일을 미리 예언해 놓고 있다.

菩薩摩訶薩 坐道場時
 보살마하살 좌도량시
 一切世界 草木叢林 諸無情物
 일체세계 초목총림제무정물
 皆曲身低影 歸向道場 是爲
 개곡신저영 귀향도량시위
 第四未曾有事
 제사미증유사

- 대방광불화엄경59권
 이세간품38-7

“보살마하살이 도량에 앉을 때에 온 세계의 풀과 나무와 숲과 무정물들이 몸을 굽히고 자세를 낮추어 도량을 향하니 이를 일러 네번째의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

이분이 승리하신 날은 잃어버린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사망의 신에 의해 종살이하면서 죽어가는 인류와 삼라만상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천초목도 그분을 향해 경배를 드린 것이다.
 밀실(密室)이란 곳은 이와 같은 엄

청난 하늘의 역사가 비밀리에 일어난 곳이고 또 비밀리에 성공을 거두신 곳이기도 하다. 세 분 하나님이 밀실에서 역사하시어 세 분이 하나로 이루어져 삼위일체(三位一體)로 완성되어 6000년간 마귀의 수중에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것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성공을 거두신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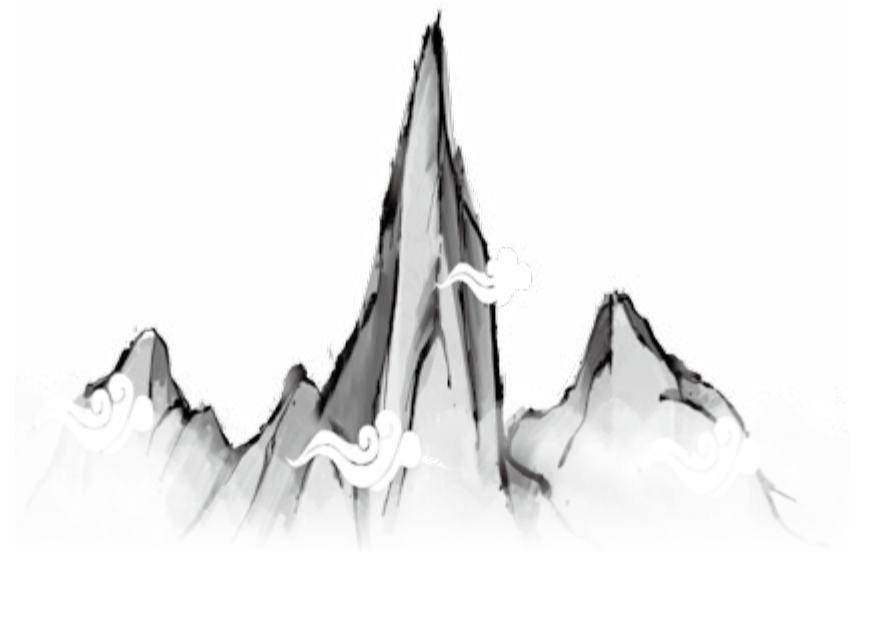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누구도 모르게 비밀리에 구세주 출현을 위해 은밀(隱密)하게 역사하시어 성공을 거두게 한 밀실이다.*

-다음호에는 13편이 연재됩니다.

도서출판 해인
 라준경의 '인생이야기'
 너희 앞에 두면 참 좋은 책
 휴식 같은 시
 지은이 _ 라준경
 경북 대구 출생 (1970)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학 수료
 현) 대구 승리재단 승사
 국제 신인류 문화학회 임원
 값 10,800원

격암유록 新 해설
 제30회

81중(九重=9x9) 정도령이 퍼는 영생의 진리를 누가 가히 알리요?



生初之樂(五) 생초지락

天地大道氣還定 천지대도기환정
 年年益壽江南仙 년년익수강남선
 永寧通書玉甲記 영녕통서옥갑기
 天道大降一氣道 천도대강일기도
 坊坊曲曲惟物處 방방곡곡유물처
 世人不知天上仙 세인부지천상선
 日月何山不照處 일월하산부조처
 高出雲霄照最先 고출운소조최선명

영원한 생명의 대도의 기운이 돌아와 안정하게 되고 해마다 수명을 더하니 남쪽 조선(한국)에 신선이 있음이라. 편안한 삶을 영원히 이루어 나갈 비밀을 기록한 서책인 옥갑기에 써여 있으니 이러하니라. 천도(영생의 대도)가 크게 내리니 유불선합일의 하나님

의 무극대도로 중생들을 탈겁중생 하려하나 오직 물욕에 빠져 있는 방방곡곡의 세상 사람은 하늘의 신선이 내려 오심을 알지 못하더라. 해와 달이 어느 산인들 밝게 비추지 않는 곳이 있겠는가마는 하늘의 구름위로 높이 솟은 봉우리가 가장 먼저 밝아지느니라.

處處谷谷天道還 처처곡곡천도환
 水水山山前路立 수수산산전로립
 天高地卑有誰知 천고지비유수지
 二十四位八方回 이십사위팔방회

곳곳마다 골짜기마다 천도 즉 영생의 도가 돌아오니 물은 물대로 산은 산대로 앞일이 절로 열리니라. 천고지비(天高地卑)의 이치(음양의 이치 즉 세상만사의 이치)를 누가 있어 알겠는

가? 24방위와 팔방위에 따라 돌아가는 모든 별들도 정해진 이치대로 일정하게 돌아가는 것이니라.

24방위: 자계 축간인갑묘을진 손사병오정미곤신경 유신술건해임
 8방위: 건 감 간 진 손 리 곤 태(팔괘)

春秋筆法由來跡 춘추필법유래적
 三皇五帝德億花 삼황오제억역화
 三綱五倫永絕世 삼강오륜영결세
 明明至德八條目 명명지덕팔조목
 神道觀之重重生 신도관지중중생
 十萬大兵號令 십만대병호령
 天空空虛無無裡 천공공허허무무리

춘추필법은 천하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우는 사필(史筆)의 준엄한 눈법이니 삼황오제의 선정(善政)과 덕이 남긴 억억(億億)의 자취를 이어 받아 오랜 세월동안 꽃을 피게 하려함에서 유래한 것이니 삼강오륜이 영영 끊어지려는 지금의 세상에서 밝고 밝은 도와 덕을 가르치는 3강령(대학지도재명명덕재신민재지어지선大學之道在明明德在新民在止於至善) 8조목(格物격물, 致知지지, 誠意성의, 正心정심, 修身수신, 齊家제가, 治國치국, 平天下평천하)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진리를 마음으로 깨달아 거듭나게 하려함이 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호령하여 무량대수의 마귀를 박멸소탕하느니라. 하늘(하나님)은 텅 빈 허공인 것 같지만 없는 것이 없는 조화가 그 속에 있느니라.

東方花燭更明輝 동방화촉명명휘
 信天村深紫霞中 신천촌심자하중
 秋天執弓白馬還 추천집궁백마환
 深盟信誠明道還 심맹신성명도환
 三十六宮都春 삼십육궁도춘
 萬樹春光鳥飛來 만수춘광조비래
 衡天和氣三陽春 형천화기삼양춘
 九宮妙妙好好理 구궁묘묘호호리
 三陰三陽一般氣 삼음삼양일반기
 千千萬萬何何理 천천만만하하리
 吹來長風幾萬里 취래장풍기만리
 九重桃李誰可知 구중도리수가지

동방의 등불이 다시 밝게 빛나리니 신천촌의 자욱한 보랏빛 안개 속에 인생 알곡을 추수하는 가을(금음)에 십삼 정도령(6도 81궁)께서 마귀를 박멸소탕하는 감로해인을 들고 오느니라. 신부 신랑이 결혼식 할 때 사용하는 동방화촉(洞房華燭)은 혼례를 치르고 신랑 신부가 첫 날밤을 보내는 것을 말하지만 진리를 구하는 자는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신랑이 되어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동방화촉(東方花燭)은 동방화촉(洞房華燭)을 포함하는 것이다. 신인합일(神人合一)이요 하나

님이 좌정하심이다.

믿음과 정성속의 깊은 맹세를 이루려고 밝고 밝은 영생의 대도를 가지고 오느니라. 우주 천지가 모두 봄이 오고 온갖 나무에 봄빛이 비치니 새들이 날아드는구나. 하늘을 찌를 듯한 화기(和氣)는 삼양(三陽)의 봄이요, 즉 삼양은 건(乾)이니 하늘이다. 즉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장하시니 화기(和氣)가 하늘에 가득하다는 뜻이다. 하도낙서의 팔괘 구궁의 진리가 묘하고 묘하다. 좋고 좋다. 삼음은 곤(坤)괘요 삼양은 건(乾)괘이다.

지천태괘(地天泰卦)가 되어 불사영생의 세계가 되느니라. 하늘도 하나 땅

도 하나 인간도 하나(천일天一 지일地一 인일人一) 즉 천지인 모두 하나님이 되어 천천만만이 영생을 얻으니 어떤 이치인가?

머나먼 몇 만리 밖에서 영생의 봄바람이 불어오니 구 구(구중九重) 팔십일궁(6도81궁) 정도령이 퍼는 영생의 진리를 누가 가히 알리요? 도리(桃李)는 복숭아와 자두이며 이상향을 말한다. 도리(桃李)는 도리(道理)를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곧 이상향과 영생의 진리를 동시에 의미한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